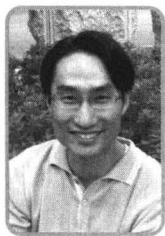


연극과 영화의 만남 안내할 가이드북

‘우열’ 아닌 ‘차이’ 관점에서 두 장르 매력 비교

글_ 박준용(연극평론가, 한양대 강사)



영화 관객 천만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가는 세상임에도 한 달은 고사하고 상, 하반기를 나누어 연극 한 편 보러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2,500년이 넘는 장구한 연극의 역사와 고작 100여 년 남짓에 불과한 영화사를 비교해 가며, 인류의 삶과 생각의 무한한 보고로서 연극의 탁월성을 역설해 봐도 대학로 나들이는 여전히 낯선 길음일 뿐이다.

대학에서의 강의 첫 시간에 필자는 하루가 멀다하게 영화관을 드나들면서도 연극은 연례행사만큼도 보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묻는다. ‘대체 왜 연극을 안 보게 되는가?’ 대답은 으레 4가지로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비싸요’, 두 번째는 ‘재미없어요’, 세 번째는 ‘가기 힘들어요’, 네 번째는 ‘어려워요’이다. 참고로 재미가 없다는 것은 스펙터클의 차원에서 볼거리가 없다는 뜻이고, 마지막의 어렵다는 것은 내용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이해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여기에 종종 홍보 부족의 문제를 드는 경우도 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연극에 대한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지는 솔직한 답변 아닌가?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앞서의 네 가지 이유는 모두 연극과 ‘어떤 것’을 비교해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무엇일까? 무엇이 비해 연극은 비싸고 재미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영화’다. 사람들은 ‘영화’와 전혀 다른 예술 장르로서의 ‘연극’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 채, 다만 블록버스터 영화가 줄 수 있는 스펙터클한 시청각적 쾌감을 연극에 기대하고 요구한다. 가공된 영상문화에 깊이 경도된 사람들과 ‘생생’ 공연예술매체의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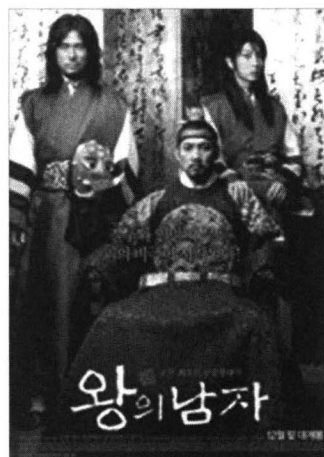
물론 문제의 핵심은 영화나 영화보기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 질긴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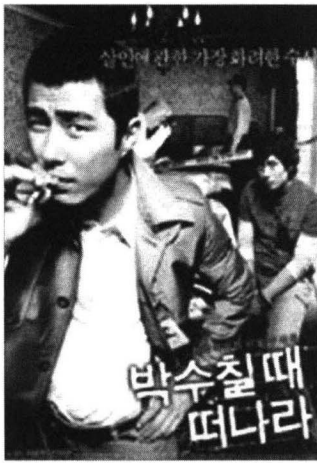
명력을 잃지 않게 했던, 연극만이 지닌 ‘바로Just, 지금Now, 여기Here’의 미학을 오늘날 관객들이 발견할 수 없음에 말미암는다.

필자는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상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예비 연극관객들이 더 이상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극을 끼워 맞추거나 재단하지 않고, 연극 자체가 지닌 맛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을 만나고 싶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입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이미 영화에 친숙해진 사람들에게 연극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침 튀기며 부르짖는 것은 생똥맛을 따름이다. 오히려 영화는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면서 동시에 연극 역시 나름의 차별화된 멋과 맛이 있다는 것을 서로 보고 즐기며 비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책이 좋을까?

최근 우리 영화계에서는 연극 무대를 통해 공연된 작품들을 시나리오의 원안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들이 앞다투어 개봉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광림 씨의 작품인 ‘날 보러와요’를 토대로 하여 500만이 넘는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필두로, 올 한 해에만 극작가 겸 연출가 장진 씨의 동명 희곡 ‘웰컴 투 동막골’과 ‘박수칠 때 떠나라’가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졌고, 신예 희곡작가 겸 연출가인 김태웅 씨의 ‘이빨’을 원안으로 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 등이 개봉하여 흥행과 평단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물론 연극의 영화화는 매체로서의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공연 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연극 작품이 자연스럽게 영화화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우리 연극계와 영화계의 만남은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연극과

영화의 조우는 관객이나 영화, 연극인들 모두에게 새롭고 낮은 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매체적 시각을 안내해 줄 친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연극과 영화의 만남을 안내할 가이드북은 영상 세대인 독자, 관객들에게 가능한 연극적인 관점에서, 우열이 아닌 '차이'의 관점에서 두 매체의 서로 다른 매력을 꼼꼼하게 비교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형식은 내러티브의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두 장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시각이 담긴 풍성한 이야기의 향연을 벌이는 것으로 하자.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극과 영화의 차별화된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호평 받은 연극작품이 연이어 영화화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즘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예를 들어 연극 '웰컴 투 동막골(이하 웰컴)'의 원안자이자 연출가인 장진에 물어보자. 한정된 공간과 제한된 인원과 효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무대 공연을 위해 극



작과 연출에 있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했는지, 연극인의 입장에서 영화화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은 무엇인지 나아가 영화보다 도리어 무대를 통해 표현했던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자.

작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배우들의 말도 물어보자. 연극과 영화 모두에 출연했던 군인 표현철 역의 신하균 씨나 그 외 배역들에게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가 각각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또 거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물어보자. 여기에 음악, 의상, 미술, 세트 등 스태프들이 말하는 '차이'도 빠질 수 없다. 무대와 스크린에서 나름의 극적 환영을 창

조해 가는 미술사들이 연극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낮은 경험들을 들어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의 주인공, 관객이 나설 때이다. 공연 관극 마니아와 영화 관람 마니아, 그리고 두 매체 모두를 즐기는 열혈 관객들을 불러 모아 한 판 수다를 떨게 하자. 평론가나 전문인들은 가라. 체험한 관객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연극과 영화체험, 그 같음과 다름의 소리를 중계하자. 지면에 여유가 있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극의 영화화로 주목을 받은 작품들을 소개해 볼 수 있겠다. 17세기 영국 블록버스터 대중상업 연극임에도 오늘날 진지와 엄숙의 원칙 없는 가면을 쓴 채 영화화된 셰익스피어 작품들 이야기가 너무 케케묵은 듯 느껴진다면, 지난해 연극과 영화로 동시 개봉해 화제를 모았던 '클로저Closer' 나 '프루프Proof'와 같은 현대적인 작품들의 이야기를 풀어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연극인으로서 필자는 소망한다. 이런 책과의 만남을 통해 독자이자 관객인 사람들이 연극, 영화인들이 말하는 '같은 작품 서로 다른 빛깔의 이야기' 들에 귀 기울여 가면서 영화와 다른 연극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매력, 곧 온 세상에서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 찾아온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공연이기에 당연히 아무데서나 볼 수도 없고 그에 따른 티켓도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또 비록 영화와 같은 장관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텅 빈 공간을 무한의 상상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가능성, 살아 있는 배우와 같은 시·공간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이 전해주는 그 치명적 중독성의 매력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한민**